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개소



광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 분소가 4월 5일 10시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광양시 농업인들

이 순천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분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게 분소 개소를 추진했다.

## 농관원 직원 4명 상주 상담 등 업무 처리 23년 만에 광양시 농업인들의 숙원 해결

광양시 제2청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는 광양분소 개소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인사말씀, 정현복 광양시장의 환영사, 진수와 광양시의회의장의 축사,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분소 소재지는 광양시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1층으로, 농관원 직원 4명이 상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민원상담·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시는 1998년 국립농산물검사소 전

남지소 광양출장소가 순천으로 합병돼 문을 닫은 지 23년 만에 광양분소 유치로 광양시 농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그동안 광양시 농업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인근 시를 찾아야 했던 불편을 광양분소 유치로 해소하고 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보람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업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 고흥 김 일본 수출시장 공략 성공

고흥군수협 김바라노리텐 수출협약 성공...전년비 10배 이상 늘어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수협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군, 고흥군수협, 일본 김바라노리텐(대표 김바라 미츠루)사 바이어 등 수출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김’ 일본 수출 상차 행사를 가졌다. 군은 지난해 4월 일본 김바라노리텐사, 고흥군수협과 삼자 간 고흥 김 600만불 일본 수출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 시장에 고흥 김의 수출 길을 열었다. 2019년 13만\$에 그쳤던 일본 김 수출이 협약 이후인 2020년 140만\$의 수출액을 기록하여 약 12배 상승했으며, 올해는 250만\$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김은 탄력이 좋아 김밥용으로 적합하며, 국내 김밥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연간 10억장의 길이 소비되는 일본 시장에 적합하여 수출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어 김 생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농산물과 함께 우수한 품질과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수산물 수출 또한 중요하며, 수산물은 보관문제 등으로 품목과 신규시장 수출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더 많은 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라노리텐사의 후지사와 이사는 “고흥군과 고흥군수협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사 수입 생산 제품 중 고흥 김의 비율을 5%에서 60%까지 늘렸으며,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내년에는 고흥 김을 더욱 많이 수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흥군수협 이흥재 조합장도 “수출 협약 이후 김 수출량이 크게 늘어 매우 기쁘고, 내년에는 수출 시기를 앞당겨 초산 김부터 수출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흥 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김택영 기자

## 보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 착수

보성군은 4월 1일부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1,215필지/962,299㎡)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측량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복내 반

석2지구, 복내 용전지구, 회천 회령1·2지구)는 지난 3월부터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신명유아이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토지현황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순천시-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협약 장전동에 빗물 순환 통한 정원 조성...대기 환경 개선 기대

순천시가 최근 환경부에서 개최한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전동 스마트 그린 도시 선도 사업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스마트 그린 도시는 환경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서 복합적인 도시 환경문제를 하나의 콘셉트로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생태환경이 어우러져 발전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환경부의 2020년 12월 첫 번째 공모사업에 순천시를 포함한 전국 2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순천시 장전동 일대에 추진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빗물 순환을 핵심으로 원도심 중심지가되기에 부속했던 녹지를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로 노면 살수 등에 빗물 여과·재이용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순천시는 장전동 고가도로 일원에 미세 타이어칩 등 오염물질이 섞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정화하여 저장한 후 자동으로 정원에 유입시켜 도시 구조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천과 인접한 마을과 상가로 생태환경이 정화·확장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활용할 장전동 빗물 순환 정원은 또 하나의 도심 속 박람회장이 될 예정이다. 장전동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108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 추진

13만 3,484㎡에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테마길(탐방로) 조성

여수시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92호)인 선소유적지에 선소테마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소테마정원은 민선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선소 유적지 13만 3,484㎡에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을 포함한 테마길(탐방로) 등이 들어서 역사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된다. 국·도비 73억을 포함한 195억 원이 투입되며, 전시관 등과 연결되는 테마길(탐방로) 조성돼 역사성을 살리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

바뀐다. 선소테마영상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00㎡ 규모로 선소의 기록, 역사, 선박의 구조 등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여수시는 2022년 발주를 목표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협업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 순천시, 시민소통 '온라인 공론장' 운영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OK 소통1번가' 시민의견 수렴

순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시민의 일상을 정책에 담기 위해 온라인 공론장 'OK 소통1번가'를 운영한다. 이번 공론장은 '코로나19 시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란 주제로 진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슬기로운 제안, 일상과 경험 등을 온라인 댓글 방식으로 듣는다. 시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삶

의 기준은 무엇인지 듣고 공유할 필요가 있는 일상 변화를 찾아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은 순천시 홈페이지 'OK! 소통1번가' 정책토론 코너에서 실명확인(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론장은 30일간 투명하게 공개돼 모든 시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댓글 참여자 중 원하는 시민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토론 진행과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